



■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지난 2004년 5월 제13대 병원장에 취임한 이래 병원 CEO로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재임명을 받고 현재 14대 병원장 임기를 수행 중에 있다.

Interview

성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맡기 전 이미 분당병원장 시절에 디지털 병원 시스템을 도입, 일찌감치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의료의 선두주자로 부각됐다. 성 원장은 이 디지털 병원 시스템 도입과 '6시그마'를 추진하는 혁신경영, 그리고 비전경영, 글로벌 및 기술혁신경영 등으로 지난해 12월 13일 한국일보와 주간한국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2007년 올해의 CEO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대해 성 원장은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수상이 어떻게 저 혼자 잘해서 얻은 영광이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체 직원들이 모두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 이루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수상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잘하고, 국제적인 병원으로 도약하라는 이 사회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대상’은 미래 기업경영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한 모범적인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정부부처와 언론기관 인증기관 협회 등에서 인정한 기업의 CEO가 그 대상이 된다.

성 원장이 이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된 업적은 우선 비전경영부문 중 ‘뉴비전 선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 ‘세계 의료의 리더를 양성하는 병원’, ‘의료선진화를 추구하는 정책협력 병원’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병원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외래 대기시간 단축’, ‘입원 재원일수 단축’, ‘의료장비 도입 프로세스 개선’ 등 주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후 전사적 확산을 통한 ‘6시그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6시그마 추진’을 비롯해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및

물류통합관리, 책임경영제 도입 등과 같은 혁신경영부문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현장 경영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경영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 등이 ‘종합대상’ 수상자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성 원장은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은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BT분야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진료 질 강화 그리고 교육능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기 선정하는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연구윤리지침 국제인증 획득했으며, 단일 의료기관으로선 처음으로 SCI 논문 1천편 시대를 연 점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고객만족경영과 관련해선 I-first 캠페인을 통해 병원을 찾는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정착시켰으며 입원 대기환자 중심의 탄력적 병원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콜센터 개설, 진료예약제도를 개선하여 현장 경영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도로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직원들은 병원이 그 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올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화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의료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시키겠다는 우리의 꿈과 의지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올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육문화아카데미와 사이버 아카데미를 구축해 활발하고도 유익한 지식기반을 다져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가 의료진을 초청해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SCI 논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가임상시험의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등의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인진료가 전체 외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성 원장은 대학병원의 3대 목표인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을 이렇게 밝히면서 “외래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One-Stop Full Service’의 개념으로 암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첨단치료개발센터를 신축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발전을 위한 많은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영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경영난을 겪지 않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대다수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병원들 스스로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규제와 잘못된 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성 원장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의료시장 개방 등 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해 병원에 대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들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성 원장은 몇몇 인기과로 전공의들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했다. “소위 비인기과로 불리워지고 있는 임상과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과가 적지 않아요. 근년들어 전공의를 모집할 때마다 기피과로 취급되고 있는 흉부외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임상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 임상과들 가운데 지원자가 거의 없는 과가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의료의 균형이 깨지게 되지요.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잘못된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하고,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료의 균형은 깨어지고, 이를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 원장은 또 우리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도 제기한다. 노령화사회로 진입한데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연구와 진료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성 원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노인성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대비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도해 나가는 부문 가운데 하나가 의료 IT Network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강국이라는 우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의료 전반에 걸쳐서 볼 때 보완하고 지원해

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인재양성과 재원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든지 의료 IT Networking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말하던 성 원장은 보험수가 이야기가 나오자 다소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한다.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대해선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는 정부의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급여확대를 할 때 의료계의 의견을 좀 물어 보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문제가 됐던 식대문제나 6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진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는 하지만 암,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이보다 중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여 필요한 급여의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자진료와 병원 경영에 있어서 의료계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국민은 물론 정부나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 원장은 “우리가 의료선진국이 되려면 현재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 내지 8%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가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관들 스스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성하여 국민들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료기관들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대답 김성환) **KHA**